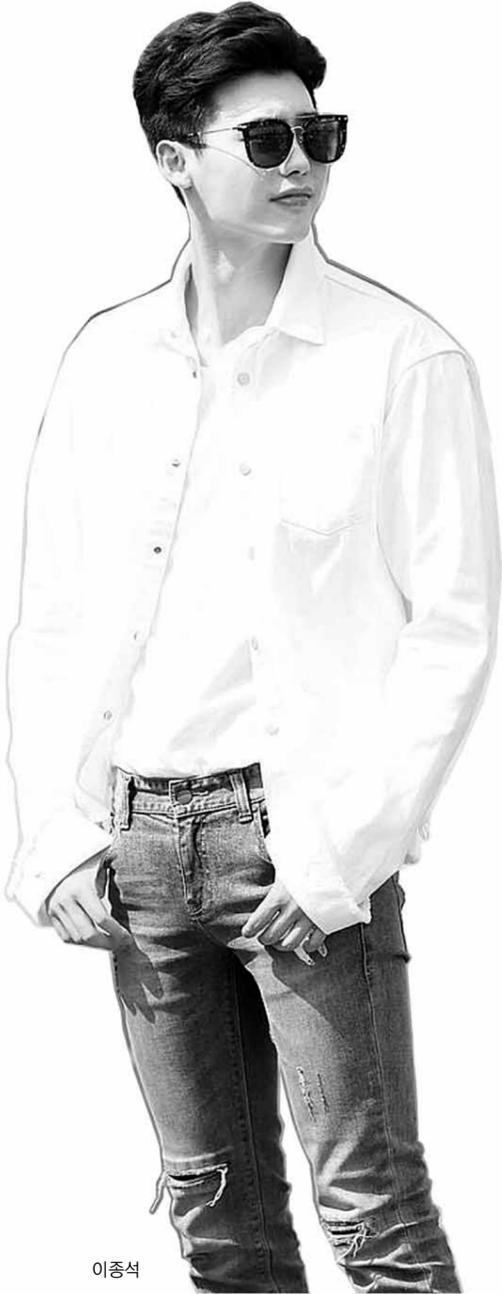


서있기만해도 화보 시청자들은 즐겁다



이종석

모델 출신 남자 배우 안방 점령

이종석·김우빈·남주혁 등

연기·표현력 뛰어나 인기몰이

180cm 이상은 기본이고 190cm도 넘는다. 특히 다리 길이가 남다르다. 이 우월한 유전자들은 움직이는 게 곧 화보가 된다. 길쭉길쭉한 게 시원하고 뻗기가 있다. 우락부락하지도 않다. 가늘고 날렵하다.

모델 출신 남자 배우들이 안방극장을 장악했다. 드라마에 실망할지라도 배우들이 화면에서 펼치는 위기는 패션쇼 런웨이 저리가라다.

◇ 드라마 속 패션쇼 런웨이
지난 1일 MBC TV 수목극 'W'의 마지막 장면. 186cm의 이종석이 임무를 완수하고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두뼉두뼉 걸어왔다. 패션 광고의 한 장면 같았다.

같은 시간 경쟁하는 KBS 2TV '함부로 애틋하게'에는 키 187cm의 김우빈이 버티고 있다. 어깨가 떡 벌어진 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W'에는 188cm의 이태환도 등장한다. 이종석의 오른팔로, 심지어 믿음직한 보디가드 역할로 이태환은 서 있는 것 자체가 근사하다.

SBS TV 월화극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의 남주혁과 흥중현도 모델 출신이다. 각각 고려 태조 왕건의 3황자와 13황자 역이다. 황자라 화려한 의상을 소화하는 이들은 사극 복장으로도 감추지 못하는 빼어난 '웃걸이'를 자랑한다.

남주혁의 키는 188cm, 흥중현은 182cm다. 키가 작은 상대 배우들과 붙는 장면에서는 이들이 화면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이다.

tvN 금토 드라마 '신데렐라와 네명의 기사들'에는 키 186cm의 안재현이 출연한다. 몸매 유지를 위해 하루 한 끼만 먹는다는 안

재현은 모든 움직임이 깃털처럼 가볍다.

SBS TV 일요 예능 '런닝맨'의 주축인 이광수의 키는 190cm. 그는 오는 11월 첫선을 보이는 tvN 금토드라마 '안투라지'에 출연한다.

◇ 외모만? 연기도 쫓는다
한때는 모델 출신 배우들이 외모는 좋지만 연기가 되지 않아 제작진의 골칫거리였다. 외모를 보고 발탁하긴 했지만 연기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그들을 캐스팅한 게 곧 참사로 이어지고는 했다.

하지만 최근 안방극장에서 활약하는 이들은 연기도 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패션쇼 런웨이에서의 경험은 카메라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배포를 키워줬고, 요즘에는 모델 일 자체를 또 하나의 연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모델 출신 배우들의 연기력과 표현력이 좋아졌다는 평가다.

이들은 배우가 된 후에도 런웨이에 서는 것을 병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태양의 후예'에 얼굴을 내밀고 tvN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출연한 안보현은 키가 187cm다.

그는 앞서 인터뷰에서 "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일단 모델부터 시작하자고 생각해서 대학 모델과를 두드렸는데 온 좋게 붙었다"면서 "2007년부터 서울컬렉션 등의 무대에 섰고 배우가 된 지금도 여전히 무대에 서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현은 김우빈과 대구 대경대 모델과 선후배 사이로, 학창시절 함께 모델과 배우의 꿈을 키웠다.

3년 전 KBS 2TV '학교 2013'에서 고교생을 연기했던 이종석과 김우빈은 현재 여럿하게 미니시리즈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활약 중이고, 다른 배우들도 부지런히 연기자로서의 경험을 쌓고 있다.

특히 이종석은 차승원, 정우성 등의 계보를 이어 모델 출신 연기자의 성공사례가 됐다. 그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에 이어 'W'도 성공시키면서 흥행을 이끄는 배우가 됐다. /연합뉴스

다섯 악당들의 생존 싸움이 펼쳐진다

영화 '아수라' 정우성·황정민·곽도원 등 출연

"변변한 히트작 없이 제가 지금까지 감독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우성 씨와 함께 영화 '비트'를 찍은 덕분입니다." (김성수 감독)

"김성수 감독과 다시 한번 작업하기를 계속 기다려왔죠." (정우성)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 중 하나인 영화 '아수라'의 김성수 감독과 정우성이 1일 서울 압구정 CGV에서 열린 '아수라' 제작보고회에서 서로에 대해 애정과 신뢰를 드러냈다.

두 사람은 '비트'(1997년), '태양은 없다'(1998년), '무사(2001년)'에 이어 15년 만에 '아수라'로 4번째 호흡을 맞췄다.

'아수라'는 강력계 형사(정우성)와 악덕 시장(황정민), 독종 검사(곽도원)가 각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거침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야기를 담았다. 기존의 범죄 액션처럼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등장인물 모두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악당으로 나온다.

정우성은 아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악덕 시장의 온갖 나쁜 일을 처리해주며 악인의 길로 들어선 비리 형사 한도경 역을 맡았다. 정우성이 지금껏 맡은 역할 가운데 가장 지독하고 악한 캐릭터다.

정우성은 영화 속 강도 높은 액션을 직접 소화해냈다. 특히 앞차를 들이받는 자동차 추격신도 대역이나 컴퓨터그래픽 없이 직접 연기하는 등 투혼을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아수라'(阿修羅)의 원래 뜻은 아수라 세계에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이 다. 원래 대본 위에 쓰여 있던 제목은 '반성'이었지만 대본을 읽은 황정민이 "완전, 아수라판이네"라고 말한 데서 착안해 제목을 바꿨다고 한다. 황정민은 영화 속에서 악덕 시장 박성배 역을 맡아 다중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을 연기했다.

김 감독은 황정민에 대해 "재능을 타고났을 뿐 아니라 지독한 연습벌레"라며 "한 장면 안에서 감정의 파고와 전혀 다른 얼굴을 변화무쌍하게 보여주는 배우"라고 극찬했다.

'범죄와의 전쟁'의 악질 검사, '변호인'의 고문 경찰을 연기한 곽도원은 악인보다 더 악한 검사로 출연한다. 주지훈은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선에서 악으로 변해가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등 개성 있는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개봉은 9월 28일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옥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이옥정 찰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365 05 세상발전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재)	00 MBC 정오 뉴스 20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열린공간 토크 talk(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발상의 전설 55 별별가족		05 통일전망대 55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2	00 연중기획-빛고을행복이카데미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45 텔레몬스터	
3	00 콘서트 필 50 안녕 우리말 55 튜튼생활체조 (재)	00 자정공부작성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퓌?퓌! 키즈스쿨 55 깨달음시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교향전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공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구르미 그린 달빛 특별판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려)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길	00 꽃놀이패
12	20 인간극장 스페셜(재)	40 사랑의 가족(재)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45 스포츠 특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 (비밀의 문이 열리면 1부 보물 따라 가세) 06:20 세계테마기행 (마루의 여드벤처)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여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동물영 유치원 1~3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똥뽀이 09:15 출동! 슈퍼핑크	09:30 이팝! 스페이스 정글 09:40 아버지의 귀환 10:30 한국기행 (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명란젓 두부찌개와 도라지 깻잎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시계마을 티키펫!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아웅령령 귀여워 15:35 요술 상자 15:45 출동! 슈퍼핑크 16:15 방귀대장 똥뽀이(재)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6:45 동물영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안도 골짜락, 소모도) 20:50 세계테마기행 (발칸의 천국을 거닐다. 크로아티아 1부 요정의 숲, 플리트비체) 21:30 한국기행 (그리워라 어머니 밤상 1부 청년 민어를 만나다) 21:50 EBS 다큐 프라임 (영트레베레나, 경제강국의 비밀)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5일(음 8월 5일 庚寅)

子	48년생 찾을 길이 없어서 막막하겠다. 60년생 우려할 만한 일이 보이니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72년생 돌발적인 국세를 이룰지도 모른다. 침착해야 한다. 84년생 불청객이 추진하던 일에 차질을 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3, 67	午	42년생 상대에 따라서 반응의 차이가 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54년생 변화가 있을 것이니 이에 대비하자. 66년생 별도로 설정해 두는 것이 유리하리라. 78년생 보기 좋은 락이 먹기도 좋은 법이니라. 행운의 숫자 : 13, 97
丑	49년생 두얼굴의 속성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 될 것이니라. 61년생 스프리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73년생 똑같은 정황이 반박이 가며 반복되는 형상이므로. 85년생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니 벼치를 가라. 행운의 숫자 : 08, 36	未	43년생 보기와는 달리 실속이 있을 것이니 기대해도 된다. 55년생 지금, 본래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67년생 복잡하여 가늠하기가 애매할 것이다. 79년생 본격적인 귀도로 이끄는 걸린 차 역할을 한다. 행운의 숫자 : 23, 82
寅	50년생 막상 임하고 보면 별것이 아님을 알리라. 62년생 막혀왔던 물꼬가 트이리라. 74년생 만회할 수 있는 호기가 도래하고 있느니라. 86년생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정성을 다하라. 행운의 숫자 : 45, 76	申	44년생 본바탕이 탄실해야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56년생 상대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게 하라. 68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것을 속 시원하게 처리하게 된다. 80년생 부수적인 일에 얽매지 말고 주된 요건에 충실하라. 행운의 숫자 : 44, 80
卯	51년생 말없이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인다. 63년생 망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었다. 75년생 유혹을 뿌리치고 매 한 가지로 나아가자. 87년생 맹목적이라면 오류를 낳을 뿐이다. 행운의 숫자 : 01, 40	酉	45년생 부족하면 반드시 채워줘야만 하느니라. 57년생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임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69년생 불안정한 구상은 실패를 이끄는 실마리가 될 뿐이다. 81년생 확실한 사실을 가정을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42, 31
辰	40년생 핵심을 간과한다면 실기로 이끄는 요인을 만든다. 52년생 명분에 사로잡힌다면 손실을 낳는다. 64년생 모든 일에 우선해야 하느니라. 76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88년생 결실이 알차다. 행운의 숫자 : 32, 66	戌	46년생 비웃을 때 더 많이 채워지는 법임을 명심하라. 58년생 사례를 참고한다면 도움이 된다. 70년생 사소함에서 벗어났을 때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 82년생 사정을 헤아려서 무리하지 않게 처리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0, 99
巳	41년생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53년생 무리하여 가고 있으니 만사행통하리라. 65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77년생 무리한 방법은 피하고 봐야겠다. 89년생 미리 서둘러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9, 92	亥	47년생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 것이니 이를 감안하고 임하라. 59년생 상대는 기본 포석을 깔고 접근하고 있느니라. 71년생 상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83년생 상대의 뜻에 반한다면 매우 불만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0, 5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